

# 현안과 과제

■ 해외건설의 신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  
- 해외건설 50년, 의미와 과제

## Executive Summary

### □ 해외건설의 신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 - 해외건설 50년, 의미와 과제

#### ■ 개요

1965년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해외건설 사업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건설은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시장 위축, 세계 경제 회복 지연, 고부가가치화 미흡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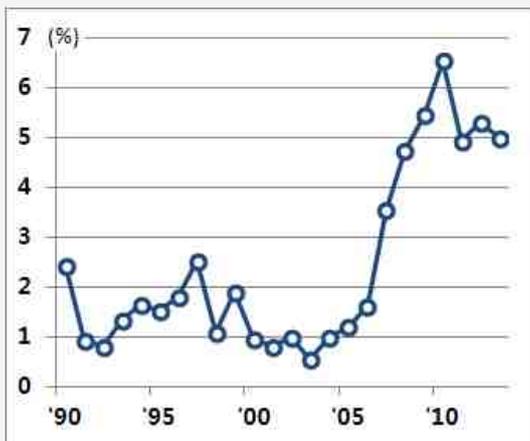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사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주구조 개선, 고부가가치화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 ■ 해외건설의 중요성

해외건설은 국내 건설업의 대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은 경제발전과 함께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 성숙기에 도달하여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반면, 해외건설은 최근 10년 간 수주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10년 716억 달러로 5년 동안 7배 이상 급성장한 이후 600~7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누적 수주액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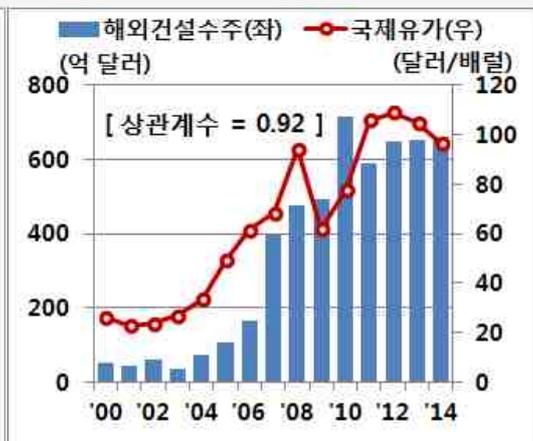
또한, 해외건설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건설 수주액 비중은 90년대 1~2% 수준에서 최근에는 5%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해외건설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건설대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설 서비스수지 흑자폭은 2004년 21.7억 달러에서 2014년 138.4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명목 GDP 대비 해외건설 비중>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해외건설협회 데이터 활용 계산.

<해외건설수주 및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해외건설협회 데이터 활용 계산.

## ■ 신성장동력화 취약 요인

첫째,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수주 지역은 여전히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시장 불확실성에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 해외건설의 중동지역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 수주구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해외건설의 중동지역 편중은 유가 하락 시 발주물량 감소 및 기존 발주 철회 등 경기변수에 따른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1982년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지역의 수주 급감이 재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수주 공종 역시 플랜트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해외건설에서 산업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산업설비 78.4%에 달하고 있다. 수주 공종 편중 현상은 특정 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고 국내 업체 간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한국의 해외건설은 단순도급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해외건설에서 단순도급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13년 누계수주액 기준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등 후발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확장이 지연될 경우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넷째,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오히려 감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외건설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7년 398억 달러에서 2013년 652억 달러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수주액은 같은 기간 67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해외건설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9%에서 2013년 2.3%로 급락하였다.

다섯째, 해외건설 인력의 해외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국내인력은 1980년 12.8만명에서 2005년 4천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2.5만명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해외건설 인력 수요가 기능직에서 관리·기술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주요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 ■ 시사점

첫째, 해외건설 사업의 지역별, 공종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각화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조달 능력 강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를 통해 해외건설 사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공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인력수급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외건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

## 1. 개 요

### ○ 위기의 해외건설,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

- 1965년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sup>1)</sup>을 시작으로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해외건설 사업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음
  - 한국의 해외건설은 1970년대 후반 중동건설 붐 이후 30년 만인 2000년대 말에 다시 한 번 고속성장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함<sup>2)</sup>
  - 특히 중동지역은 여전히 한국 해외건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sup>3)</sup>
  
- 그러나 최근 해외건설은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시장 위축, 세계 경제 회복 지연, 고부가가치화 미흡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
  - 201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최근 성장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지역의 발주물량 감소, 기존 발주 철회 등은 한국 해외건설의 성장을 위협
  
- 해외건설 50년을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사업의 체질 개선 및 새로운 전략 수립이 시급
  -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이 뚜렷하게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건설의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모색이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
  - 한국의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 지역, 수주 공종, 사업 유형, 기업 규모 및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1)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한국 해외건설 시작.

2) 해외건설 수주 규모 추이는 2페이지 참조.

3) 지난 10년(2005년~2014년) 간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에 달함. 중동지역 비중 관련 내용은 4페이지 참조.

## 2. 해외건설의 중요성

### ○ 해외건설은 국내 건설업의 대체 성장엔진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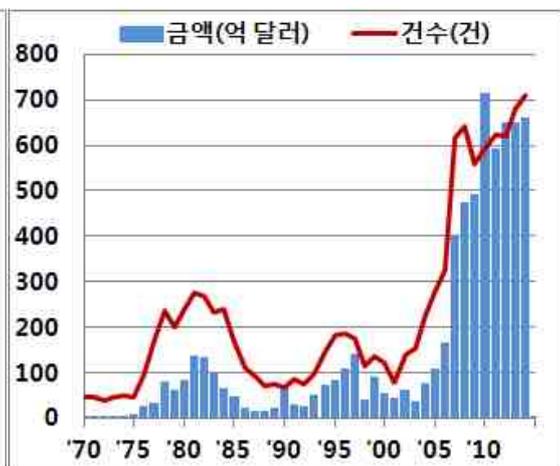
- 국내 건설업은 경제발전과 함께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 성숙기에 도달하여 저성장 시대에 진입
  - 국내 건설투자는 197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0.4%의 고성장을 지속하다가 2000년대 이후 성장이 정체
  -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1년 29.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3년에는 14.4%를 기록
- 반면, 해외건설은 최근 10년 간 수주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10년 716억 달러로 5년 간 7배 이상 급성장한 이후 600~700달러 수준을 유지
  - 2014년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660억 달러, 누적 수주액은 6,761억 달러로 2015년에는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국내 건설투자 및 GDP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기준 실질 가격.

<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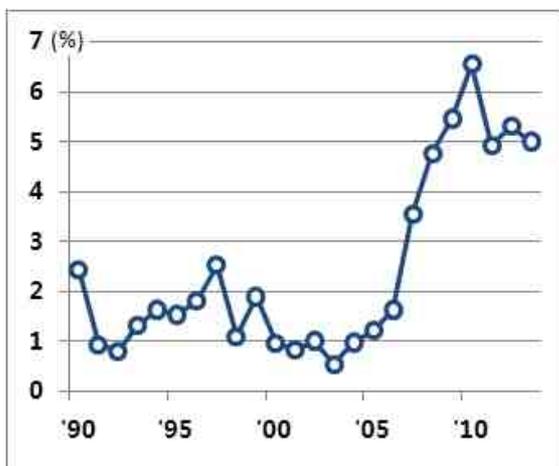
-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건설 수주액 비중은 90년대 1~2% 수준에서 최근에는 5% 수준까지 상승

- 한국의 명목 GDP는 1990년 2,79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 3,04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해외건설 수주액은 같은 기간 68억 달러에서 652억 달러로 증가
-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해외건설 수주액 비중은 1990년 2.4%에서 2013년 5.0%로 두 배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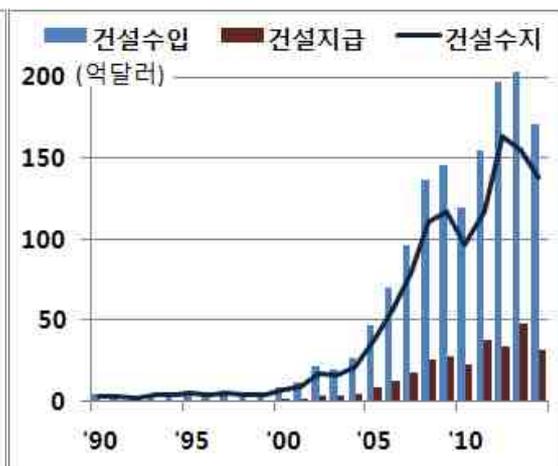
- 해외건설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건설대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설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확대

- 한국의 건설수입은 2004년 26.6억 달러에서 2014년 171.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건설지급은 같은 기간 4.9억 달러에서 32.6억 달러로 증가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설수지 흑자폭은 2004년 21.7억 달러에서 2014년 138.4억 달러로 확대됨
- 한편, 해외건설 관련 수출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기계, 플랜트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 명목 GDP 대비 해외건설 수주 비중 >



< 건설서비스 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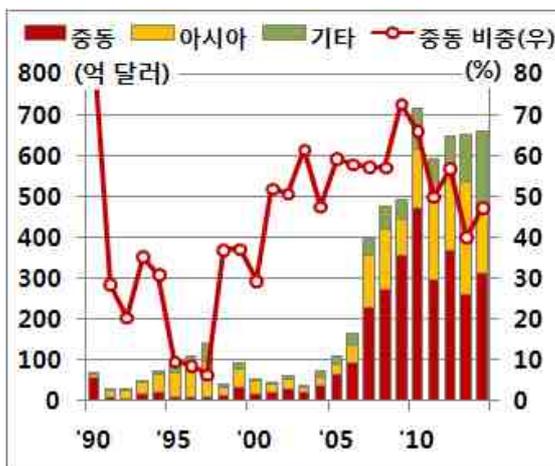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해외건설 협회 데이터 활용 계산. 자료 : 한국은행.

### 3. 신성장동력화 취약 요인

#### ① (수주 지역) 여전히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시장 불확실성에 취약

- 한국 해외건설의 중동지역 비중은 2009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
  - 지난 10년(2005년~2014년) 간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
  - 중동지역 비중은 2009년 72.7%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3년 40.1%까지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47.5%로 상승
  - 2014년 기준 지역별 수주현황은 중동 47.5%, 아시아 24.1%, 유럽 10.2%, 중남미 10.2%, 태평양·북미 4.6%, 아프리카 3.3% 순
- 이에 따라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국제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유가 하락 시 수주규모가 감소할 우려가 상존
  - 한국의 해외건설수주액과 국제유가의 상관계수는 0.92로 매우 높은 수준 (1996년~2014년 연평균 가격 기준)
  - 최근 저유가 상황에서 발주물량 감소 및 기존 발주 철회 등이 나타나고 있어 1982년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지역의 수주 급감이 재연될 가능성 존재

< 지역별 해외건설수주 추이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수주 및 국제유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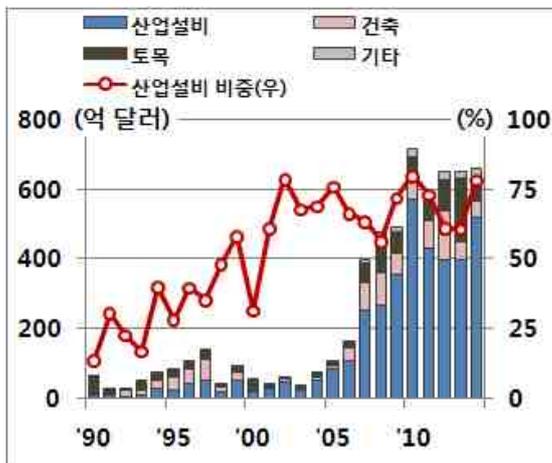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해외건설협회 데이터 활용 계산.  
주 :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② (수주 공종) 플랜트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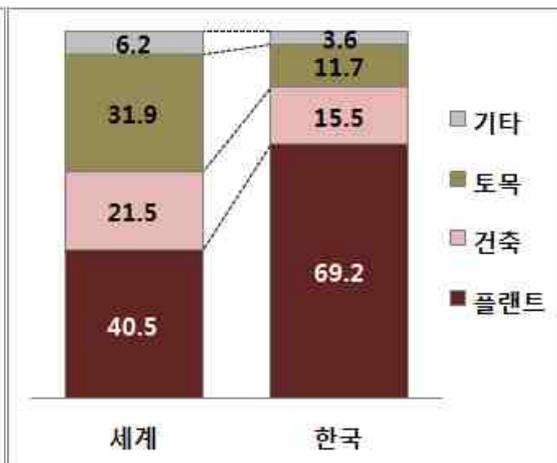
- 해외건설 수주 공종에서 산업설비(플랜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편중된 수주구조 형성
  - 한국의 해외건설에서 산업설비(원유시설, 정유시설, 가스시설, 정유공장, 화학공장, 발전소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산업설비 비중은 1990년 13.4%에서 2002년 78.8%로 빠르게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2014년 기준 공종별 수주 비중은 산업설비 78.4%, 토목 8.6%, 건설 7.5%, 기타 5.6%로 나타남
- 수주 공종 편중 현상은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증가 및 국내 업체 간 과도한 수주 경쟁 유발 가능성
  - 세계 건설시장에서 플랜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인데 비해 한국의 해외 건설 중 플랜트 비중은 69.2%로 높은 수준(2008년~2012년 평균)
  - 반면 토목 분야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9%인데 비해 한국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에 불과
  - 수주 공종의 불균형은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업체 간 과잉 경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공종별 해외건설수주 추이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세계 건설시장 공종별 수주구조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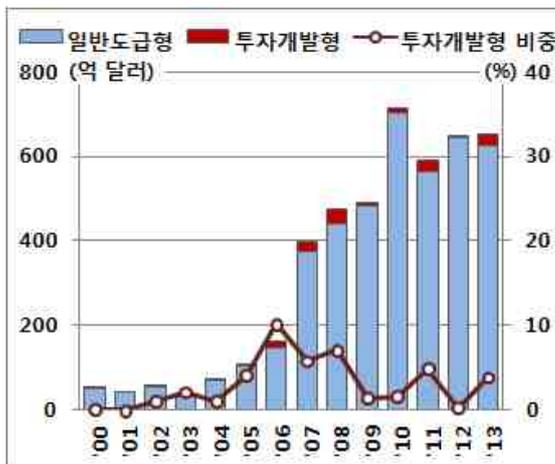


자료 : Engineering News-Record, 해외건설협회.  
주 : 2008~2012년 평균.

③ (사업 유형) 단순도급형 사업 위주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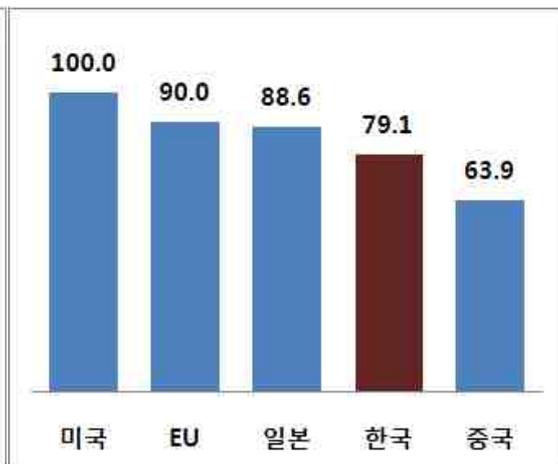
- 한국의 해외건설은 단순도급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
  - 한국의 해외건설에서 단순도급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3%로 나타남 ('00~'13년 누계수주액 기준)
  - 투자개발형 사업은 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반면,
  - 단순도급형 사업은 입찰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존재
  
- 중국 등 후발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확장이 지연될 경우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 우려
  - 최근 해외건설 시장의 발주 형태는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
  -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정부의 보증이나 지분참여 등이 결합된 공공민간파트너십(PPP) 사업 방식이 활성화
  - 수익률이 높은 토목(공항, 항만, 철도·도로, 댐, 상·하수도, 단지조성), 건설(호텔, 콘도미니엄, 상업시설, 병원, 학교, 주택, 사무실) 사업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이 증가

< 해외건설 유형별 수주 추이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플랜트산업 기술수준 비교 >



자료 :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2012).  
주 : 미국=100.

④ (기업 규모) 중소기업 수주가 감소하여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오히려 감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외건설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
  -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7년 398억 달러에서 2013년 652억 달러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수주액은 같은 기간 67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하락
  - 이에 따라 전체 해외건설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9%에서 2013년 2.3%로 급격하게 하락
  - 정부는 해외건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 확대,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중소기업의 해외 원도급이 위축되는 한편 국내 하도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진출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
  - 중소기업 수주액 중 해외 원도급은 2007년 43억 달러에서 2013년 3억 달러로 하락한 반면, 국내 하도급은 같은 기간 8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급증
  - 이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액 중에서 국내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7%에서 2013년 82.3%로 빠르게 증가
  -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국내 하도급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어 국내 건설 산업의 공생발전 생태계 훼손이 우려

< 기업규모별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중소기업 유형별 수주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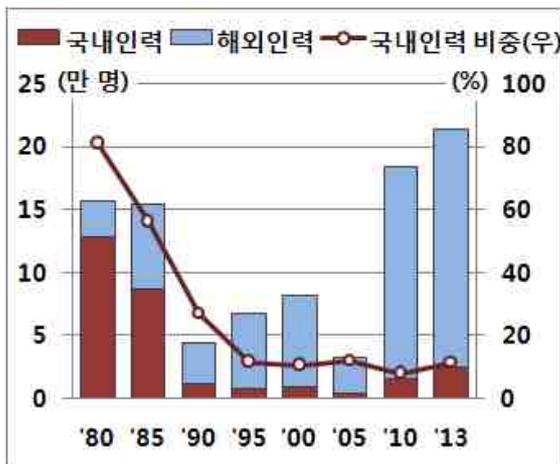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⑤ (인력) 투입 인력의 해외 의존도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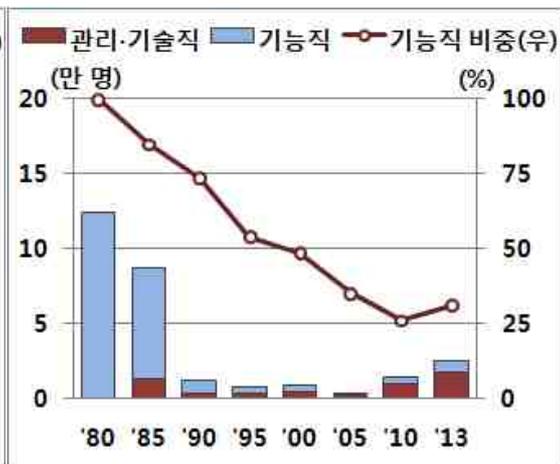
-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국내 인력이 감소하고 해외 인력으로 대체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하락
  -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국내인력은 1980년 12.8만명에서 2005년 4천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2.5만명 수준까지 회복
  - 해외건설 현장에서 국내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2013년에는 11.5%를 기록
  - 인력 수급의 불일치로 해외건설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국내 건설기술 인력은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 해외건설 인력 수요가 기능직에서 관리·기술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주요 과제로 대두
  - 해외건설 국내인력 중 관리·기술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까지 하락
  - 해외건설업체 설문조사('14. 1) 결과, 사업 진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며, 교육을 통해 고급관리자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수행관리 능력, 리스크 관리 역량,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의 필요성 증가

< 해외건설 투입인력 구성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 국내인력의 직능별 구성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4. 시사점

- 첫째, 해외건설 사업의 지역별, 공종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각화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지역 수주 감소 및 기존 발주 철회 등 해외건설 사업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 국가별, 유형별 시장규모, 행정장벽, 경영환경 등 해외건설 시장에 대한 정보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신흥 시장에서의 수주를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활성화하여 아프리카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 시장을 개척하는 창구로 활용
  - 공공조달 및 부분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수주 성공률 제고
  
- 둘째, 금융조달 능력 강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를 통해 해외건설 사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주의 핵심 요소인 재원조달능력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수주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
  - 다자개발은행(MDB), 국부펀드, 개발금융기관 등 해외건설 프로젝트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
  - 국내 주요도시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 신도시 개발, 상·하수도 구축, 도시철도 건설, 도심 환경개선 등 유망 프로젝트를 집중 공략
  - 공항, 항만, 고속철도 등 투자개발형 교통·물류 프로젝트 수주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건설의 고부가가치화 추구
  
- 셋째,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공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 해외건설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규모 확대, 보증 보험료 및 수수료 인하, 대출 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강화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
  - 해외건설 중소기업이 하도급, 공동수급, 원도급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 방안을 모색

- 넷째,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인력수급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외 건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
  - 해외건설 비즈니스에 필요한 어학 실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통해 신흥국 진출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우수 인력을 공급
  - 국내 건설업체 재직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외건설 분야로의 진출을 지원
  - 청년층의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 알선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해외건설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 **HRI**

산업전략본부 백홍기 수석연구위원 (2072-6310, hkback@hri.co.kr)

산업전략본부 장우석 연구위원 (2072-6237, jangws@hri.co.kr)